

[2000 OMC 저녁집회]

둘째 날 : 불처럼 바람처럼

하용조 목사 / 본문 : 행 2:1~4 / 페이지 수: 2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성령 받고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예수를 만난다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성령체험입니다. 내 의지와 지식, 상식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살아 계신 예수를 만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전도에 능력이 생깁니다. 전도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말씀 읽는 것도 달라집니다. 성경의 말씀에 대해 해석이 되고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알게 됩니다. 기도와 찬양이 달라집니다. 교회 오는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관습적으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과 성령 체험하고 예수 믿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성숙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숙해 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실수와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겪어가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다 미숙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계속 임하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냉랭한 그리스도인과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다 마찬가지이고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당신이 풍성한 삶을 누리신 그리스도인, 열매 맺는 삶을 누리신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것, 그 능력에 대해 경험이 많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에게 제각기 말씀의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영 분별함 등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능력을 부여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성령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의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깨어나고 불처럼 일어나 그 능력들이 표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여러분의 교회를 살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역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기쁘고 즐겁고 더 하고 싶고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장로, 집사, 감독의 자격은 인격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의 자격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 다니며 설교를 들었습니다. 기적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

다녔지만 가롯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보았지만 부활을 본 후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 그물로 고기를 잡는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이나 예수님의 제자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성령세례를 받고 심령이 거듭나야 변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500명의 사람 중 순종한 사람은 120명 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홀연히'는 하나님은 내 시간에 오시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시간에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 때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사람들의 머리에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사람들은 서로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고 말했고 비난했지만 베드로가 그것은 요엘서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꿈을 꾸고 환상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부활이 내 몸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심을 믿으십시오. 옛 사람이 아닌 미래의 사람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 태어날 줄 믿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삼으시고 능력의 삶으로 쓰시고 여러분의 삶에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 출처 : 은누리신문**